

데스크 시국



최재호 경제부장

불황의 골이 깊어져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골목상권 할 것 없이 모두가 울상이다. 국내 소비시장 트렌드 역시 구매나 소유를 절제하는 이른바 ‘절약형 소비’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영업을 제한하자 유통기업이 ‘신수(神의 한수)’라고 할 수 있는 품수를 부리는데 그 수법이 가히 혀를 내두르게 한다.

상품공급점과 주유소 품수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최근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별개로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을 광주에 등장시키고 있다. 물론 상호뿐 아니라 이마트

대기업의 품수와 경쟁력

유통시스템을 통해 물건을 공급받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차별성을 따지자면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이라는 간판이 없지만 개인 유통업체라는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와 중소기업인 살리기 네트워크 등은 “지난해 말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유통업체가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상품공급점이라는 부도덕한 방법을 통해 상생의 도를 깨트리고 지역상권 장악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역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곳은 동·서·남·광산구 각각 1곳 씩과 북구에 3곳 등 총 7곳이 있으며, 광산구에는 슈퍼센터 롯데슈퍼 상품공급점이라는 이름으로 2곳이 영업 중이다. 업계는 이같은 형식의 슈퍼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상품 공급점’이 SSM과 거의 다르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SSM이 관련 규제로 인해 의무휴업일을 지키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만 상품공급점은 제한에서 자유롭다. 상품공급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개인사업장으로 분류돼 SSM과 같이 규제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규제에 대한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의 품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여수와 순천에 각각 주유소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일 롯데마트는 지난 2월에 여수시에 주차장 착공계를 내고 국동 여수점 주차장 부지에 셀프주유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 순천점도 지난 3월 순천시에 주유소 건축 및 개발 행위 허가를 얻었고, 덕암동 주차장 부지에 조만간 주유소 영업을 위한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원할 때 자생력 갖춰야

롯데마트와 이마트의 주유소 운영에 대해 주유소협회 관계자들은 “업계는 물론 지역 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 주유소 40여개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 상태인데도 유통대기업이 주유소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비단 대형마트의 주유소 영업은 기름 판매가 목적이 아닌 마트 고객 유치를 위한 미끼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역시 대형마트의 주유소 영업도 적절한 기준에 따라 신청돼 막을 방법은 없다.

백번 양보해서 현대 유통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 가치, 편의성을 대형

마트가 제공하고 전통시장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다. 대기업을 옹호하는 일부 보수 언론매체들도 지난해부터 시행한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으로 인해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있었지만 그 중 재래시장과 골목슈퍼의 매출 증가로 연결된 것은 20% 미만이고, 백화점 등 다른 구매처로 가거나 구매를 포기했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한다.

운송수단의 변화와 생활문화의 변화, 세대의 변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에는 전통시장의 자리를 대형마트와 SSM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품수까지 동원해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대기업의 행태는 제4의 물결로 일컬어지는 ‘상생협력’과는 궤를 달리한다. 대기업은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좋은 물건을 값싸게 공급하며, 대형마트와 정당하게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때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엔 한계가 있다. 자생력이 없는 지원은 ‘깨진 독에 물 붓기’임을 골목상권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lion@kwangju.co.kr

社說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국비 지원이 관건

2015 광주하계U대회가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먼저 U대회에 출전하는 남북단일팀의 성사 여부와 경기장 신축 등 과도한 투자로 대회 이후 광주시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가 끈질기게 추진해온 남북단일팀 구성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장기간화되면서 논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UN이 지난해 남북단일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직접 중재에 나서기로 했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남북단일팀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북한의 연이은 강경책으로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북한 측에 먼저 대화를 제의해 반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희망적인 않아 보인다. 하지만 어떤 식이든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한다. 그것은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남북 단일팀 출전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U대회 성공적 개최는 물론 남북 화해·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U대회에 쏟아 붓는 재정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체 1조 원의 예산 가운데 국비가 30%가량 지원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광주시가 70%에 해당하는 7000억 원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한해 세입이 1조1200억 원에 불과한 광주시로서 ‘짜자 대회’를 치르려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광주U대회 성과 여부는 정부 지원과 대기업 스폰서를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는 U대회 흑자 달성을 위해 중앙기 지원 마련 방안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거기에는 대회 이후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앞으로 남은 2년여 정부와 민·관, 정치권이 최대의 역할을 결집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만이 성공 개최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편차 심한 고교 기숙사비 손질할 필요있다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비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고교별 기숙사비가 최대 2.4배나 차이 날 정도로 편차가 큰 데다 학생 부담경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정희곤 의원은 15일 광주 시교육청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해 고등학교의 수익자 부담경비가 학교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연 기숙사비가 학생 1인당 최고 133만여 원이나 차이가 나고, 일부 학교는 연간 7억 원이 넘는 기숙사비를 거둬들이는 등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는 학생 1인당 기숙사 방값이 연 232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학생 420명에게 기숙사비를 모두 7억1052만 원을 받았다. 이는 같은 자사고인 승덕고보다 31.4%(55만4700원)나 많고, 가장 저렴한 대동고보다 무려 2.4배(133만6000원)나 높은 수치다.

공립인 광주여고도 1인당 213만7780원을 기숙사비 방값으로 징수했다. 이이 상일여고 192만 원, 금호고 176만 3000원, 동신고 174만 원, 서강고 168만 원 등으로 학교별 차이가 컸다. 급식비도 학교간 연 75만400원의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심하다.

광주시교육청은 기숙사비는 이용인원과 청소용역 등 각종 편의 차이에 따라, 급식비는 학교별 급식횟수와 학생수의 차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편차가 학교간,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고교 기숙사의 환경이 비슷함에도 학부모간 불평등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부담 감소와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학교간 편차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고교 스스로도 과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내실 운영을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금은 천재 작가로 꼽히지만, 독일의 유대계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1883~1924년)는 평생 실패를 반복하며 어두운 삶을 살았다. 직장생활을 너무나 싫어했지만 회사원으로 생을 마쳤고, 결혼을 원했지만 끝내 독신이었다. 허약했고 가족과도 사이가 나빴으며, ‘출세만을 바라는’ 아버지와는 평생 거리를 두고 살았다.

그의 사후 출세작 ‘변신’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린 주인공 ‘게오르그 잠자’가 카프카 자신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다. 카프카가 아버지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를 엮어서 펴낸 자전적 산문집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에 따르면, ‘벌레’는 부자 사이에서 느끼는 비애감의 상징이다. 곧 ‘벌레’는 아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의 눈에 비친 카프카 자신의 모습이며,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벌레로 본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르고, 무관심에 상처받은 아들 카프카는 소설 ‘변신’을 통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받으려 했지만 그 목표는 끝내 달성되지 못했다. ‘변신’에서 아버지가 벌레로 변한 아들의 방을 한 번도 들어다보지 않았듯이 현실에서도 아버지는 카프카의 소설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소설에서 ‘벌레’로 변신한 게오르그 잠자는 결국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 죽는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애증은 작가들에게 매우 인기있는 소재다. 아버지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겉으로 아들이 피해자지만,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둘 다 피해자라는 점도 문학 소재로 인기를 끄는 이유다.

소설가 이외수씨가 ‘레’는 부자 사이에서 느끼는 비애감의 상징이다. 곧 ‘벌레’는 아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의 눈에 비친 카프카 자신의 모습이며,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벌레로 본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르고, 무관심에 상처받은 아들 카프카는 소설 ‘변신’을 통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중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준비하자

상당수가 실재는 해외여행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에도 중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국 인민대학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1인당 GDP는 1만3000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2012년에는 인구 1000만이 넘는 선전이 1인당 GDP가 2만 달러가 넘었고,

장쑤성, 저장성, 베이징자치구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넘었다. 현재도 약 4억 명에 달하는 중산층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경제 수준에 달하면 중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올해에도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2월 누적 기준 37만 5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만 6900명)보다 41%나 증가했고, 전체 일국자 가운데 중국인 비중도 29.5%에 달해

일본인 관광객을 추월했고,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의 관광객도 3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올해에는 중화권 관광객도 1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중국인 관광객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영양가 만점의 관광객이다. 출몰이 나 국경질 전후에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로 백화점 매출이 배로 오르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29만원으로 일본인 126만원의 거의 두 배나 된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500만이 넘을 것이다. 우리 지역도 중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지역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제주도에는 중국인 특수로 불황이 없다고 한다. 작년에는 중국인 110만이 제주도를 방문해 약 2조원의 돈을 뿌리고 갔고, 중국인이 매입한 부동산도 2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체에 5억 원이 넘는 초호화 주거형 리조트는 제주 라운프라이빗타운은 200계 이상을 중국인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고 북한이 오판할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 하길 희망한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 되지만 앞으로는 덜 요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어느 정도 강경대응의 수위를 조절한 듯한 느낌을 준다. 미국은 전쟁도발을 부추길 것인지, 세계 유일의 분단 상태로 남겨둔 채 이해득실을 따질 것인지 갈림길에서 있다.

남북한 당사자끼리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김영석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관계가 지금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남북관계의 종착역은 아니”라면서, “평화와 번영이 남북관계의 미래상인데 개성공단은 미래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북한 지도층들은 절대 무모하지 않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겉으로는 금방이라도 쳐들어 올 것처럼 과장하지만 실상 속으로는 언제 다른 누가 자신들을 침범하지 않을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핵을 계속 개발하고 국방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도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회유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햇볕정

책이었는데 햇볕정책은 이명박 정권이 단절시켜버렸다. 햇볕정책은 서로 다른 두 체제의 나라가 하나로 통일, 통합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통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북한의 최대목적은 전쟁이 아니다. 물론 통일은 더더욱 아니다. 북한의 최대목적은 오로지 정권유지다. 유엔이나 미국 등이 북한 정권유지에 필요한 자금줄들을 압박하면서 북한의 정권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경책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차원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호남 4·19 통일외방대의 입장이다. 통일은 민간운동으로만 가능하다. 남과 북 양측 국민이 서로 부족한 것을 나누고 도와갈 때 통일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고조된다. 4·19통일외방대는 ‘춤드리 쌀 모으기·북한돕기 물자모으기’를 시작으로 북한주민과의 직접소통운동을 펼쳐갈 것이다. 북한에도 버려진 자원이 많을 것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영웅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했다. 북한이 최근 “오늘이나 내일게 미국을 향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위협 발언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국방부가 괌 기지에 최첨단 탄도미사일 방어(MD)시스템을 몇 주 안에 투입한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전쟁발언을 한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전쟁 발발을 경고한 것은 미국이 한미군사합동훈련에 B-52, B-2 전략폭격기 등을 투입 한 데 이어 전날 괌 기지에 ‘몇 주 내로’ 고고도방어체계(THAAD)를 투입한다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은 남한보다는 미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대응 차원으로 전쟁발언을 한 것이다. 워싱턴의 한 고위관리는 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미국은 B2와 F22, 구축함 출동 같은 무력 과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위기지수를 낮추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